

# '쾌남' 부르며 캔이 돌아왔어요

남성 듀오 배기성·이종원  
1년 여만에 신곡 발표  
3040 세대 즐길 노래  
'내 생애 봄날은' 뛰어 넘겠다



남성 듀오 캔이 19일 열린 새 앨범 발표회에 참석, 신곡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조강력 하트를 너에게 줄게”, “그대는 나만의 마릴린 먼로”(신곡 '쾌남' 중) 남성 듀오 캔(CAN)의 배기성과 이종원이 1년여만에 발표한 신곡 '쾌남' 쇼케이스 무대를 선보인 직후. 행사가 끝났는가 했더니 '아내를 위한 선물'이라는 부제가 붙은 발라드 뮤직비디오가 흘러나오고 배기성이 화분을 들고 무대에 나타났다.

화분을 받아 들고 눈시울을 밝힌 사람은 배기성의 아내이자 이날 쇼케이스 진행을 맡은 쇼호스트 이은비씨.

신곡 '쾌남'이 배기성이 결혼 2주년 기념일을 맞아 발표한 한정곡이라더니, '사랑꾼'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셈이다.

배기성과 이종원은 서울시 강남구 일지아트홀에서 19일 열린 쇼케이스에서 “중고등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돌 음악은 있지만 요즘 30, 40대 친구들이 들을만한 노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즐길 수 있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한 노래”라고 신곡을 설명했다.

이날 각종 음원 사이트에 공개된 '쾌남'은 변화무쌍한 편곡과 흥겨운 멜로디의 록 댄스곡이다. 캔은 호쾌한 이미지를 잠시 내려놓고 온 마음을 바쳐 '애완남'이 되겠다며 구애한다.

이종원은 “자신은 되게 터프하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귀엽고 착한 남자 이미지”를 곡에 녹였다고 했다. 배기성은 “여성분들에게 어필하려면 최대한 귀여움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며 웃었다.

배기성 아내 이은비 씨가 진행자로 나서다 보니 아직 신혼인 이들 부부의 실제

모습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배기성은 “이 무대에 들어와 서기 전까지 애완남이었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1998년 결성된 캔은 이번 신곡에서 데뷔 후 처음으로 울퉁이 아닌 '본격' 안무를 시도했다. 이종원은 “뒀가에 흘린 것처럼 했다”고 했고, 배기성은 “초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캔의 대표곡은 드라마 삽입곡으로 국민적 인기를 끈 '내 생애 봄날은'이다. 배기성은 “내 생애 봄날은”이 너무나도 대중에게 박혀 있었고, 그동안 비슷한 노래들을 냈지만 '내 생애 봄날은'을 이길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던 중 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최수정 작곡가를 만나 '쾌남'이 탄생했다. 싸이 '말춤'을 만든 안무단장이 안무를 짰다.

“캔이 21년 됐는데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어요...이 정도의 변화는 충분히 우리가 겪어야 하고, 어떤 변화를 겪더라도 해내겠다는 생각을 했죠. ‘우리 건재해, 뒀기지 왜 못해’ 이런 생각으로 했습니다.”(배기성)

다소 격한 안무를 소화하면서도 배기성과 이종원은 특유의 힘 있는 가창력을 과시했다.

앨범에는 멤버들 각각의 음색을 살린

솔로곡도 한 곡씩 실렸다.

목표를 묻자 배기성은 “대중 분들이 저희를 계속 기억해 주시고, 무조건 캔만이 할 수 있는 노래들을 많이 사랑해주시는 게 꿈”이라고 답했다. 여전히 대중들의 따뜻한 마음을 풀어주는 ‘해우소’가 되고 싶다는 소망도 밝혔다.

국민 히트곡 '내 생애 봄날은'을 뛰어넘고 싶다는 바람도 잊지 않았다.

“저희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동안은 ‘비겁하다~’(‘내 생애 봄날은’ 가사) 하셨잖아요. 지금은 ‘꼬리 쳐~’(‘쾌남’ 가사) 하시는 게 소원이예요.”(이종원)

/연합뉴스

## '문제적 남자' 전현무, 숨은 인재 발굴 나섰다

'브레인 유랑단' 오늘 첫 방송

tvN 예능 '문제적 남자'가 '브레인 유랑단'이라는 부제와 함께 확장 포맷으로 돌아온다.

'문제적 남자: 브레인 유랑단'은 기존 스튜디오 퀴즈쇼 포맷에서 벗어나 야외에서 촬영한다. 현실 속 학교, 대기업 등 천재들이 있을 법한 장소를 찾아가 이들과 함께 문제를 푼다.

이전 시즌에서 고정 출연자였던 전현무, 하석진, 김지석, 이장원에 더해 주우재와 도티가 새롭게 합류했다.

전현무는 20일 구로구 신도림동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숨어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예인보다 재밌는 비연예인이 많은 것 같다. 현장에 다니면서 방송을 잘하는 사람이 참 많다고 느꼈다”면서 “성공적으로 시즌2를 맞이한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머리가 조금 덜 통더라도 말을 잘하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서



전현무

녹화 시간을 줄이고 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카이스트 출신인 페퍼톤스의 이장원은 “이공계 특화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문제에 탐닉하는 분

을 많이 만났다. 그런 아우라를 알고 있다”며 일상에서 ‘천재 찾기’에 자신감을 보였다.

연출은 맡은 박현주 PD는 “똑똑한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을 찾는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잘 풀나 확인할 수도 있다. 혁신대학이나 대한민국 밖 등 다른 곳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제작발표회에선 시즌1 원년 멤버 그룹 방탄소년단(BTS) RM이 언급되기도 했다. 전현무는 “RM이 제게 나오길 원하고 문자도 보냈는데 한국에 없고, 있더라도 짧게만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기회가 되면 함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오늘 오후 8시 10분 첫 방송.

/연합뉴스

## 내년 서울서 세계 5개 대륙 자선 콘서트 열린다

SM '글로벌 골 라이브'

내년 9월 26일 열린다.

'글로벌 골 라이브: 더 파서블 드림'은 북미, 남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5개 대륙에서 동시에 펼쳐지는 대규모 자선 공연이다. 빈곤극을 위해 기금을 마련하는 단체 '글로벌 시티즌'이 기획했다.

현재까지 공개된 개최지는 미국 뉴욕 센트럴 파크, 나이지리아 라고스, 서울이다. 공연은 10시간에 걸쳐 전 세계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플드플레이, 메탈리카, 뮤즈, 어셔, 레드 핫 칠리 페퍼스, 얼리샤 키스, 빌리 아일리시, 퍼펄 윌리엄스 등 대형 스타들과 함께 보아, 엑소, 슈퍼엠 등 K팝 스타들이 출연진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V프로그램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모두 다 쿠키(재)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플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어쩌다 발견한 하루(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동행(재) 55 UHD 스테라(재)	00 동백꽃 필 무렵(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우아한 모녀(재)	00 12 MBC 뉴스 25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우리동네 피터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교육청 시리즈 55 특목 보합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5 꾸러기 식자교실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00 뉴스브리핑
2	00 KBS 뉴스 10 쥐라기 캡스 25 출동! 애니멀 레스큐 40 영동발발 공순이와 친구들 55 숲속 친구 스토리즈			
3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MBC 특별생방송 2019 코리아 김치 페스티벌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20 기억, 록, 100년을 탐험하다 30 호기심대장 카토	00 kbc특별기획 나는 지역에서 살기로 했다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2019 KBS광주연총특별기획 남도스페셜	00 또봇V-갤럭시웨폰 4호의 비밀 15 핑크퐁 원더스타 30 주간연예수첩	00 5 MBC 뉴스 25 두 형제를 위한 협주곡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맨 인 블랙스(재) 20 톤 위리 스킨
7	00 KBS 뉴스7 40 한국인의 밥상	50 우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폼지락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어쩌다 발견한 하루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제40회 청룡영화상
9	00 KBS 뉴스9			
10	00 다크 인사이트 55 더 라이브	00 동백꽃 필 무렵	05 지역MBC UHD공동기획 10부작 포구만리	
11	35 UHD 하룻밤 여행 소리랑 40 KBS 네트워크 특선 울긋불긋	10 해피투게더 1~2부	05 문화콘서트 난장	10 접속! 무비월드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20 양코르 MBC 다크프라임	20 나이트라인 50 테라스페셜(재)

## EBS1

07:00 코코몽3	13:00 다크 시선	18:00 생방송 특!톡! 보니하니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13:55 발걸음의 기쁨 동네책방	19:00 미라클러스: 레이디비그와 블랙렛
08:00 똥동맹 유치원	14:45 다크동화 달팽이(재)	19:30 생방송 판다다
08:30 미니특강다 슈퍼공룡파워	14:55 피피루 안전특공대(재)	20:00 4남매 쇼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5:10 코코몽3(재)	20:30 자이언트 펭TV
09:0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15:25 트리푸름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30 다크동화 달팽이	15:55 미니특강다 슈퍼공룡파워(재)	<중국한시기행10 황하3 - 시인의 고향>
09:40 아기 동물 귀여워	16:10 예술아 놀자	21:30 한국기행
10:00 지식의 기쁨	16:25 올리 앤 문(재)	<도시락 기행 4부 우리가 하동을 여행할 때>
10:30 한국기행(재)	16:40 똥동맹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21:50 다크 시선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2:45 특집다큐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워든지 뮤직박스	-광화문 광장, 도시의 심장을 바꾸다
12:00 EBS 정오뉴스	17:30 피파 피그(재)	23:35 발견의 기쁨 동네책방
12:10 말을 걸어볼까? 동남아 살아보기	17:45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재)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1일(음 10월 25일 壬戌)

<p>36년생 자문을 구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8년생 상대의 말을 다 들어 본 후에 차분하게 판단해도 된다. 60년생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다. 72년생 실리를 추구해야 할 때다. 84년생 초기에 내린 판단대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낫다. 96년생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급변 하리라.</p> <p>행운의 숫자 : 95, 16</p>	<p>30년생 상호간에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42년생 예전에 접하지 못 했던 것이다. 54년생 계획했던 대로 진행 되리라. 66년생 체면을 의식하지는 아무런 일도 못한다. 78년생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는 이가 있겠다. 90년생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다.</p> <p>행운의 숫자 : 49, 63</p>
<p>37년생 생산적인 정황이다. 49년생 다수자와의 경쟁이 예상된다. 61년생 기존의 방법을 써야 효과적이다. 73년생 절차는 제대로 봐야 돌이 편리할 것이다. 85년생 현저한 변화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 97년생 절호의 기회가 다가온다.</p> <p>행운의 숫자 : 18, 28</p>	<p>31년생 기본적인 이치에 따르는 것이 순만하다. 43년생 대처 방안이 요청된다. 55년생 잠시 보류해 두는 것이 마땅하다. 67년생 문제점은 반드시 풀이하고 시정해야 하겠다. 79년생 주된 일에 매진하다보면 부수적인 사항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91년생 응용의 묘리를 살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p> <p>행운의 숫자 : 35, 44</p>
<p>38년생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 한다. 50년생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차이가 있을 것이니라. 62년생 고생한 만큼에 비해 대가가 주어지리라. 74년생 도를 넘는다면 역효과가 날 수 밖에 없다. 86년생 이상적인 상태로 종결지어질 수다. 98년생 미래의 향방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니 즉시 받아들이도록 해야겠다.</p> <p>행운의 숫자 : 93, 60</p>	<p>32년생 실리 위주로 바라보는 것이 옳다. 44년생 조짐이 현실로 드러날 수도 있다. 56년생 커다란 관점으로 임해야 더욱 값진 수확을 얻게 되리라. 68년생 경험에서 얻어지는 인식이 유용하리라. 80년생 의심스럽다면 몇 번이고 확인하는 것만이 손실을 최소화 한다. 92년생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보라.</p> <p>행운의 숫자 : 10, 41</p>
<p>39년생 여태까지 전혀 접해 보지 못했던 별 희한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51년생 변화를 예고하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 닥칠 것이다. 63년생 난제에 봉착하여 불편하겠다. 75년생 진정한 의미를 알라. 87년생 해결점이 옳다. 99년생 주체적으로 대응 하자.</p> <p>행운의 숫자 : 45, 39</p>	<p>33년생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해야만 하느니라. 45년생 무의식중에 행한 언행에 의해서 의외의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 우려된다. 57년생 자신을 낫출수록 귀히 대접 받는 법이다. 69년생 중요한 일을 이룰 수도 있다. 81년생 나중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93년생 바야흐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양상을 띤다.</p> <p>행운의 숫자 : 25, 79</p>
<p>40년생 별도로. 52년생 알찬 성공이니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64년생 정반대의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판국이다. 76년생 참으로 희귀한 기회를 접하게 될 것이니 놓치지 마라. 88년생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지연되면서 갖가지 변수가 드러나게 되어있다. 00년생 기교에 따른 효과의 차이가 클 것이다.</p> <p>행운의 숫자 : 75, 08</p>	<p>34년생 이동해야 하는 입장이다. 46년생 선수를 잘 가린다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이니라. 58년생 잘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야할 때이니라. 70년생 정확한 정세 판단이야말로 성사 여부를 좌우한다. 82년생 기회가 사림을 버리는 것보다 사람이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다. 94년생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쓰게 마련이다.</p> <p>행운의 숫자 : 96, 05</p>
<p>41년생 내리막길로 향하리라. 53년생 과신하지 않는다면 차질은 없다. 65년생 지난해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면 오늘 영광을 맞이하게 된다. 77년생 어쩔 수 없이 어울려야만 하는 고통이 있다. 89년생 제 때에 실행한다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01년생 지나친 것은 소비가 될 뿐이다.</p> <p>행운의 숫자 : 15, 36</p>	<p>35년생 이중성을 띠고 있으니 혼동할 수 있겠다. 47년생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59년생 힘을 들었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가 여간다면 문제는 없다. 71년생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행할 필요가 없다. 83년생 주체에 따라 천양지차가 될 수도 있다. 95년생 구대의연함에 사로잡힌다면 진일보하기도 어려워진다.</p> <p>행운의 숫자 : 57, 42</p>